

### 광주 환경미화원 사망사고 4개월 지났건만...

# 작업환경 달라진 것 없는 '死개월'

차량 매달려 위험한 수거작업  
허공 비추는 후방카메라 여전  
작업 현장 한눈에 볼 수 있는  
안전장치 의무 장착 등 필요

“운전자들은 여전히 차량 후미에서 수거 작업자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지난해 광주에서 환경미화원 2명이 사고로 숨졌다. 이후 4개월이 지났지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작업환경은 전과 다를 없다는 게 환경미화원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이렇게 가다가 또다시 인명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고 이후 정부와 광주시 등은 곧바로 작업환경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시는 지난해 11월 21일과 24일 업체대표, 노조대표, 시·구 관계자들이 참여한 합동간담회를 두 차례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환경미화원들은 안전발판 설치, 대용량 종량제 봉투(100ℓ), 음식물 수거통(20ℓ) 사용 자체 등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일부 건의사항은 해당 구와 협의해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적극 반영하기로 약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은 땀집식 처방에 그치고 있다.

차량 후방카메라가 뒷면에 설치돼 이를 개방했을 경우 허공을 비추는 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29일 남구 광주환경공단 광역위생매립장에서 노모(57)씨가 쓰레기 수거차 적재함을 청소하던 중 화물칸 덮개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음에도 카메라 위치는 변경되지 않고 있다. 운전자가 사망에서 작업자를 볼 수 있도록 카메라를 확대, 설치하는 등 이중삼중 안전장치에 대한 배려는 없다. 운전자가 쓰레기 수거과정에서 뒤쪽에 있는 작업자가 어



3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한 도로에서 환경미화원이 청소차량 발판에 매달린 채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떤 일을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이다.

광주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차량 뒤쪽 쓰레기 수거함에 개폐용 안전 스위치를 부착했다. 작업자 스스로 쓰레기 적재함을 열고 닫게한 것이다. 안전스위치는 현재 광주시에 등록된 150여대의 청소차량의 경우 대부분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일부는 별도로 다시 설치해야 한다.

환경 청소차량 제조 기업인 ㈜에이엠텍 장 관계자는 “현재 설치된 후방카메라로는 환경미화원들이 어떻게 작업을 하고 파악하기도 어렵다”면서 “안전스위치 장착도 좋지만 환경미화원들이 적재함으로 들어가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환경미화원들이 차량 적재함 뒤쪽에 매달린 채 쓰레기를 수거하는 위험한 상황도 여전히 되풀이되고 있다.

이들은 차량 개조 등 대책이 없어 목숨을 잃었던 동료의 악몽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지난해 11월16일 광주시 남구 노대동 호수공원 주변 도로에서 환경미화원 서모(59)씨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뒤범퍼 쪽에 매달린 채 이동하다 후진하던 수거 차에 치여 목숨을 잃었다.

전운전 광산구 시설관리공단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차량 뒤에 매달려 있다 발생한 사고 때문에 큰 부담을 느끼며 제발 단

속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일부 환경미화원도 있다”면서 “이따라 발생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작업현장을 내려다 볼 수 있는 어라운드뷰 카메라 등 안전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 폐기물관리담당은 “(덮개에 장착돼 제 기능을 못하는 후방카메라에 대해)미화원이 직접 덮개를 조종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면서 “차량이 매달려 작업을 하고 있는 환경미화원들의 경우 도로교통법에 적발되기 때문에 광주시 소관이 아닌 환경부 등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 명의신탁 주식 팔면 탈세?... 대법 “부정 목적 입증해야”

자기 소유의 주식을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꾼 뒤 팔았더라도 조세회피 목적이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무조건 부정을 저질렀다고 간주해 과세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지난 달 29일 인천의 한 운수업체 전 대표 홍모씨가 인천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 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고 4일 밝혔다.

홍씨는 2008년 5월 두 아들과 처제 명의의 회사 주식 2만700주(17.25%)와 자신 명의의 1만5600주(13%)를 친형에게 24억원에 넘겼다. 당시 주식 양도세도 자신과 두 아들, 처제 이름으로 각각 계산해 납부했다.

하지만 인천세무서는 7년이 지난 2015년 3월 양도된 주식이 사실상 모두 홍씨 소

유이므로 홍씨가 3만6300주(30.25%)를 한꺼번에 친형에게 처분한 것으로 보아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세무서는 누진세율을 매겨 양도세 9512만원 등을 더 내라고 했고, 과세에 불복한 홍씨가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1.2심의 판단과 달리 주식을 부정한 목적으로 명의신탁했다는 점을 검찰이 증명하지 않는 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2015년 양도세 부과가 전부 무효라고 판단해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연합뉴스

### 골목서 외국인 흥기 짙어 부상

광주 광산경찰은 “지난 3일 밤 9시45분께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 주택 골목에서 중국 국적 A(30)씨가 지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휘두른 흥기에 찔려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119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중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3개월 전 일용직 노동을 하면서 알게된 중국 국적 40대 지인과 이날 다두다 그가 휘두른 흥기에 찔렸다”고 진술했다.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가짜 교통사고로 보험금 5억원 챙겨

#### 전북경찰, 51명 적발

보험사에 허위로 사고를 접수하는 수법으로 보험금 5억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A(45)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범행을 도운 B(여·50)씨 등 40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도주한 10명은 추적 중이다.

A씨 등은 2016년 12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통사고를 내지 않고도 74차례 보험을 접수해 5개 보험사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을 주도한 A씨는 공범들에게 가해자·피해자 역할을 맡도록 하고 ‘사고 시나리오’를 짜다.

그는 문자메시지로 B씨 등에게 사고 날짜와 장소, 사고 경위, 차량 번호 등을 상세히 알려주고 속지하도록 했다. 공범

들은 A씨가 일러준 대로 보험사 직원에게 전화가 걸려오면 꾸며낸 사고 상황을 설명하고 합의를 유도했다.

보험사 직원은 이들이 ‘사고가 났다’고 주장한 다음 날 보험을 접수한 탓에 사고 상황을 직접 보지 못했다.

허위 사고를 접수했기 때문에 A씨 등은 주로 대물 사고보다 대인 사고를 접수해 보험금을 뜯어냈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개인당 100여만원씩 모두 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공범들이 보험금을 받아 잠적할 것을 우려해 돈이 입금되는 날 공범과 함께 은행에 가기도 했다. 이들은 보험사 직원이 경미한 접촉사고로 인한 피해는 서둘러 합의를 보려 한다는 점을 악용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사 직원들은 사고가 경미하다고 판단, 사고 현장 사진이나 블랙박스 영상을 받아보지 않고 보험금을 지급했다. /정음=백기섭기자·전북취재본부장

### 고리 미끼 사기 행각... 18명에 5000여만원 가로채

광주북부경찰은 4일 ‘이자를 많이 주겠다’고 지인들을 속여 돈을 빌려 가로챈 두의(사기)로 A(여·2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SNS ‘카카오톡’을 통해 알게 된 18명에게 552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생활비와 제2금융권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채무 등에 시달린 A씨는 자신의 ‘카카오톡’에 “돈을 빌려주면 2주 뒤

20~30% 이자와 함께 갚겠다”는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였다.

A씨는 가로챈 돈 가운데 4000여만원은 모 인터넷방송 후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지난 2016년부터 2년 간 99명으로부터 이 같은 수법으로 3억 38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중 30명에게는 피해금의 10%를 돌려주며 고소하지 않길 종용하기도 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전남선관위, 교육감 입후보 예정자 명함 나눠준 교사 고발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사조직 결성 등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완도 모 고교 교사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공무원 신분인데도 지난 1월께 전남교육감 입후보 예정자 B씨를 위해 교사·동문·지인 등 63명에게 소셜네트워킹서비스(SNS)를 통해 지지 호소

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재직하는 학교의 학생 10여명에게 입후보 예정자 명함을 나눠주기도 했다 고 선관위는 전했다.

A씨는 지난해 2월께 현직 교사들로 구성된 사조직 결성에 참여하고 선거공약 자료 작성 등 선거운동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 휴가 첫날 PC방 화장실에 떨어진 지갑 슬쩍한 군인 ‘털미’

○...군인이 휴가 첫날 PC방에 들렀다가 화장실에 있던 지갑을 슬쩍했으나 결국 군복 때문에 경찰에 털

들어있는 지갑을 훔쳤다는 것.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날 화장실을 이용한 7명 가운데 군복을 입고 있던 정씨만 회연 가입을 하지않았다는 사실을 수사에 여러 범죄사실을 파악 한 뒤 한병대에 인계했는데, 정씨는 ‘털어진 지갑을 보니 욕심이 났다’며 선거를 호소.

○...4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정모(20·상봉)씨는 지난 2월10일 오전 10시 30분께 광주시 남구 모 PC방 남자화장실에서 오모(22)씨의 현금 15만원 등이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영광주택매매(급매)

전원주택(영광읍)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최근리모델링 전체 완료)  
텃밭, 정원, 창고, 차량진입가능

토지 151평 건물 42평  
(32평 아파트형, 창고 17평)

◆ 시세가 1억 2천 ◆  
매매가 9천 4백

주인직매 010-6670-9800

## 신축 원룸 매매 (원룸전문)

◎ 월곡동 신축건물 (최고급)  
(월곡시장 2분, 고려인마을 1분)

총 4층건물  
(원룸 12개, 투룸2개)

월수익 550만 예상

◆ 매가 : 8억 5천만 ◆

- 1) 월곡동 산정공원 바로앞(코너) 주인집거주 ▶매가 9억5천만
- 2)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 5천만
- 3) 전대정문 2분 (원,투룸 18개) 월수익 800만 ▶매가 13억5천만

010-7384-7800 010-6670-9800

##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 1) 화순 도곡면 (무인텔) 토 3,289평 건 3,278평 객실 32개(월수익 5,000만 이상) ▶감정가 39억 → 최저가3억8천
- 2) 광산구 신창동 (월룸빌딩) 토 55평, 건 120평 광주보건대 부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2억6천7백
- 3) 수원지구 (1층상가) 토 101평, 건 65평 국민은행 사거리 위치 ▶감정가 12억7천 → 7억
- 4) 서구 광천동 (주택) 토 92평 건 54평 감정가 1억8천8백 → 최저가 1억8천8백
- 5) 남구 노대동(상가건물)어린이집 감정 4억8천7백→최저가 3억4천4백
- 6) 광산구 수원동 (1층 상가) 감정가 9억6천→ 최저가 6억7천
- 7) 남구 진월동 (5층 상가원룸) 감정가 7억5천 → 최저가 7억5천
- 8) 광산구 신창동 (원룸빌딩) 감정가 3억8천 → 최저가 3억8천
- 9) 남구 진월동 (5층 상가빌딩) 감정가 18억 → 최저가 18억
- 10) 동구 충정로 (3층 상가빌딩) 감정가 4억6천 → 최저가 4억6천
- 11) 광산구 수원지구 (주차빌딩 1층) 감정가 12억7천 → 최저가 7억천
- 6) 광산구 용동(공장) 토 500평 건 445평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6억7천
- 7) 함평군 신광면 (공장) 감정 26억4천 → 최저 7억5천7백
- 8) 광산구 삼계동 (공장) 감정가 6억 → 최저가 4억2천
- 9) 목포시 신정동 (노유자시설) 감정 16억8천2백 → 최저 9억4천
- 10) 담양군 금성면 (임야 5,730평) 감정 9천 → 최저5천

A.P.T · 주택 · 공장 · 기타 등

010-6670-9800 062)382-5500

## 경매 교육 (3월초 개강)

경매로 이제부터 돈많이 버세요~

- 1) 무료반 실시 - 오전오후
- 2) 기초반 - 경매기초 + 기본실전(무료교육)
- 3) 실전투자반 - 기초+실전 - 매매까지

1) 기초반 → 경매기초 + 기본실전(무료교육)  
2) 실전투자반 → 기초+실전 - 매매까지

경매 가족을 모집합니다!

- 1) 경매 배우면서 근무하실분
- 2) 경매 컨설팅하면서 수익내실분

평생회원 → 책상,컴퓨터,교육(무료제공)

062)382-5500  
010-6670-9800